



## 專門人力양성 · 體系的 연구지원 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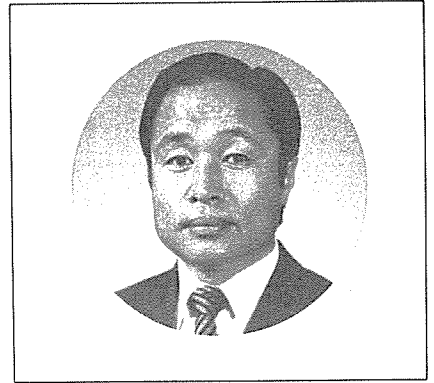
### — 應用昆蟲學의 저변확대 위해 힘쓰터

『점차 세분화 · 전문화되어가는 학문적 발전추세에 따라 지난 2월 총회를 열고 學會名을 변경하는 회칙개정안을 의결, 학회명칭을 韓國應用昆蟲學會로 개칭하고 앞으로는 응용곤충학연구에 만 주력하기로 했읍니다』

韓國植物保護學會가 應用昆蟲學會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새로 학회장에 선임된 禹建錫교수(서울대농과대학 농생물학과)는 그동안 응용곤충학분야의 연구활동이 식물병리학분야와 더불어 식물보호학회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두개의 전문분야를 동시에 다루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 이번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문을 연다.

한국식물보호학회는 지난 62년 식물병리학과 응용곤충학의 학문적발전과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식물병리학연구와 응용곤충학연구를 병행 · 수행해 왔는데 3년전에 식물병리학 관련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韓國植物病理學會를 설립하여 독립해 나감에 따라 이번에 한국응용곤충학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應用昆蟲學이란 곤충학중에서도 우리人間과 利害관계가 깊은 곤충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곤충학에 관계되는 기초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시키는 학문분야입니다』 禹회장은 곤충의 종류는 대단히 많아 동물의 8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인간과는 산업상, 위생상, 관상상등 여러가지면



◇ 禹建錫회장

에서 관계가 깊어 이들 곤충에 대하여 분류 · 분포 · 생태 · 생리 · 약리 · 방제법을 연구함으로써 人類文化를 높이는 것이 바로 곤충학연구의 목적인다고 설명한다.

특히 우리 인간이나 가축,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害虫의 발생을 억제시켜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인데 해충의 밀도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사용해온 농약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가 이 분야연구의 목적이 되고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최근 외국에서는 농약을 대체할 새로운 방제법 개발 ·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방사선 照射로 곤충을 불임시켜 자연적으로 밀도를 낮추는 불임충이용기술, 유전적인 방법으로 곤충의 생장을 조절하는 성장조절제의 개발, 해충발생을 억제하는 유용한 곤충자원의 활용법개발등 생물적방제

를 근간으로 한 종합적 방제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띄고 있다고 소개한다.

禹회장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구라파 등지에서는 이 생물적방제법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이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아직 기초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이용·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다고 강조한다.

『이 생물적방제법은 농약사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위생문제·환경공해등의 각종 부작용으로 생기는 피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고 또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농약 사용때 보다 훨씬 경제성 있는 방제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禹회장은 이러한 연구는 많은 연구비와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므로 관계당국에서는 예산의 뒷받침은 물론 조직적인 체계하에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시책을 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곤충은 종류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곤충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가 시행되었을때 비로소 효율적인 방제법 개발이 가능하므로 전문연구인력의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묶여 있는 대학원의 정원을 유동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대학에 응용곤충학과를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지요.』禹회장은 공항이나 항만에 상주하는 검역관만 하더라도 공개채용원칙에 의해 학력제한없이 모집하다 보니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감이 있으므로 전문영역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힌다.

『이웃 日本만해도 아마추어 곤충학자의 수가 2만여명에 달하고 이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전문학자의 수도 부족한 실정이니 우선 이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해야겠습니다』禹회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을 주제로한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등을 개최해 응용곤충학분야의 저변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와 産·學·研 협동체제 구축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禹회장은 또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동체제의 구축으로 앞으로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할 연구과제의 해결을 위해 힘쓸 작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금년부터 UNDP 지원으로 실시되는 과수해충에 대한 국내분포도조사연구사업을 비롯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뇌염모기, 바퀴벌레등의 위생곤충분야에 대한 연구, 또한 외국 농·임산물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유입되기 쉬운 외래해충에 관한 효율적인 방제전략의 수립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다.

『해충은 식물병균이나 잡초와 더불어 농업생산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작물을 중심으로한 農生態계의 구성요소이므로 해충방제기술을 농생태계내의 각 구성요소간의 기능적통일성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禹회장은 해충과 작물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피해, 그리고 이를 억제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방제수단은 생태학적현상으로 파악되어 경제학적으로 평가되며 또 예측이 가능하므로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실질적인 손실을 입기전에 제공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해충관리에 대한 기술개발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記)